

달빛야행

여름밤, 도시를 걸으며 천년 순천의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달빛야행(夜行)'이 열린다. 8가지 테마로 순천 문화자원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순천문화재 달빛야행'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순천향교와 문화의거리, 옥천변 일대에서 펼쳐진다.



달빛야행 프로그램에 따라 옥천교 일대에 조성되는 LED 장미(위)와 부유등. <순천시 제공>

문화재 따라 여름밤 산책 8가지 색깔있는 밤 즐겨요

18~20일 '순천문화재 달빛야행'...문화의거리·옥천변 일대

'... 달빛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밤을 테마로 특화된 문화체험 행사로, 지난해 2만6000여명의 관광객이 순천 문화재를 둘러보며 '여름밤 산책'에 나섰다.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순천의 문화재와 함께 밤을 세기다'를 주제로, 8개 테마에 맞춰 치러진다.

원도심 재생지역인 남문교~옥천서원간 옥천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자루(남문) 복원의 의미를 담은 행사와 지역공방, 창작예술촌 등의 참여를 늘려 차별화를 꾀했다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8가지 색깔있는 밤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야행'의 매력이다.

구체적으로 ▲야경(夜景), 14개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관람 프로그램 ▲야로(夜路), 밤에 걷는 문화재거리

▲야사(夜史), 밤에 듣는 순천 문화재 이야기 ▲야설(夜說), 순천향교, 옥천서원에서 즐기는 감상공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순천 주전부리 ▲야숙(夜宿), 순천에서 즐기는 하룻밤 ▲야화(夜畵), 그림으로 보는 순천이야기 ▲야시(夜市), 옥천서원에 펼쳐지는 순천부읍성 장터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각 테마별 세부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야경' 프로그램에 따라 13개 문화유적시설을 밤 10시까지 개방, 야간에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했고 '순천 문화재 보물찾기'(역사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은 지역 곳곳을 돌며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념품도 제공된다.

'야로(夜路)'는 옥천변을 활용한 '밤거리 산책'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옥천

교~향동주민센터 입구 정자 구간에 부유등을 150개 이상 띄우고 옥천변 일대 LED 장미 2000송이를 피우는가 하면, 대형 LED 애드벌룬 40개를 설치해 이야기 거리가 있는 산책로로 만들어놓았다.

'야사(夜史)'는 역사·근대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순천부읍성 남문터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지하통로를 활용한 '문화재 시간여행', 전남도 문화재자료 7호로 지정된 장명석등을 활용한 휴대용 석 등모형 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호패와 전통책을 만들고 옷감짜기 체험, 대장간 타각 체험 등도 경험할 수 있다.

'야설(夜說)'은 공연을 좋아하는 여행객이라면 쟁쟁하다. 순천향교인 명륜당 공터를 활용한 퓨전음악회와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8월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한옥길에서는 한옥음악회가 열린다.

옥천서원에서는 호남사립 원류인 김광필의 내용을 마당

극으로 구성한 '호남사립의 원류 김광필을 만나다'를 관람할 수 있고 옥천변에서는 달빛 프린트 공연이 진행된다. 순천에 처음 여학교가 개설되는 등 가장 개방적 동네로 알려진 매산동 일대에서는 돌방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야시(夜市)'는 연자루와 문화의거리 일대에 조성된다. 순천부읍성에 있던 저잣거리를 재현해 특산물, 야생시, 옷장 상품이 판매되고 문화의거리에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낮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순천과 순천의 문화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관광테마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문화재 보물찾기 재미 LED 장미 2000송이 환상 클래식·한옥음악회 정취 속 저잣거리·아트마켓 쇼핑도

순천의 가을은 축제로 넘실~

1년 축제 27개...관광객 몰려들며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웃장국밥축제·한평정원페스티벌 등 가을에만 11개 열려



'사계절 축제의 도시' 순천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물빛축제.

1년 내내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 순천이 '사계절 축제'를 펼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순천은 연간 27개의 축제를 계획, 계절별로 진행하며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계절별 여행 홍보물도 수천부씩 제작해 배포하는가 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매주 1회 이상 축제 소식을 올리고 있다.

한 해 치러지는 27개 축제 중 가을에 치러지는 축제는 11개로 가장 많다. 가을 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물만 8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2017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를 마지막으로, 가을 축제가 본격화된다.

가을의 첫 축제는 9월 8일 열리는 순천웃장국밥축제, 웃장 국밥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제 4회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9일부터 뒤를 잇고 '제 5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곧바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제 5회 별난 맛 별량 고들빼기축제'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고 비슷한 시기 어린이 책 축제(9월 23일)가 순천기적의 도서관 버드내공원에서 진행된다. 추석연휴(9월 29일~10월 9일)에 맞춰 '순천만정원 갈대축제'가 관광객을 맞는다.

정원갈대축제는 애초 개막일(10월 5일)을 추석 연휴에 맞춰 조정했고 주·야간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 팔마문화제는 10월 13일부터 3일간 열고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는 20일부터 비동을 이어받는다.

'순천만 춤추는 갈대! 가을을 녹인다'를 주제로 한 순천만갈대축제는 11월 3일부터 3일간 '김승욱작가와 함께하는 무진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을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11월 12일) 등도 어디론가 떠나고싶은 가을에 열리는 행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 가을 축제 일정

행사명	날짜	장소
어린이 책축제	9월 23일	순천 기적의도서관 버드내공원
순천웃장국밥축제	9월 8일	웃장 국밥 거리
한평정원페스티벌	9월 9일 ~ 10월 14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9월 15일 ~ 19일	순천만국가정원 일대
별난 맛 별량 고들빼기축제	9월 23일 ~ 24일	개령이 웰컴센터
정원갈대축제	9월 29일 ~ 11월 5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일원, 순천만습지
팔마문화제	10월 13일 ~ 14일	순천 시민로 및 장명로 일대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	10월 20일 ~ 22일	낙안읍성
순천만갈대축제	11월 3일 ~ 5일	순천만습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